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0주일
제29권 38호(나해) 2009 · 8 · 16

[묵상]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지혜가 일곱 기둥을 짊어 자기 집을 지었다.
짐승을 잡고 술에 향료를 섞고 상을 차렸다.
이제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그렇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도록 해야 한다.
술에서 방탕이 나오므로 술에 취하지 말며,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살을 주시며 먹어라 하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며 나누어 마셔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모시며
모든 일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의 삶을 누릴 것이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아 침 미 사 (레지오) 저 녁 미 사	오전 오후	9:00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30 7:00 8:00 7:3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2:3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장현숙 발바라, 김소천 마리아
	(생)이모로 마리아, 김종국 스테파노, 이오목 아네스, 김택현 미카엘, 신우용 안토니오
주 일 낮 미사	(연)이병호 토마스, 김중환 야고보,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금순 마리아, 이상현 베드로,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강용운 요셉, 최창용 스테파노, 김인영 베드로, 김종렬 아가비도, 엄은섭 도로테오
	(생)김세종 안드레아, 서병교 라파엘,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이종민 요셉, 서재희 헬레나, 이헬렌 헬레나, 박서니 딸가리다. 배정미 안젤라, 배경한 찰스, 이해진 돌로레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잠언(Proverbs) 9,1-6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맞들여라.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사랑해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성도들아.
그를 두려워하는 이는 아쉬움이 없나니.
가멸진이 없이되어 굶주리게 되었어도,
주님을 찾는 이는 아쉬운 복 없도다.◎
○아이들아, 다들 와서 내 말 듣거라. 주님의 경의를 가르쳐 주겠노라. 목숨이 그립고 복을 누리고자, 장수가 소원인 사나이가 누구이뇨.◎
○모름지기 네 혀는 악을 삼가라. 거짓된 말들을 네 입술은 삼가라. 사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 가라.◎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5,15-20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안에 머무르리라.◎

복음 요한(John) 6,51-58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38	193
봉헌	264	256,267
성체	소원	284,299
파견	392	201

27) 인간 배아의 냉동 보존은 인간 존엄성에 어긋난다.

“냉동 보존은 인간 배아에 합당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 냉동과 해동의 과정에서 많은 배아가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아를 죽음이나 물리적 손상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인간의 존엄 18항> “[냉동] 배아들을 연구나 질병 치료를 위해 활용하자는 제안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배아를 단순히 ‘생물자원’으로 다루고 배아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인간의 존엄 19항>

시험관 아기와 같은 체외 수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난자를 채취하여 여러 배아를 만들고 즉각 자궁 이식이 되지 않는 배아를 냉동 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배아가 죽거나 훼손되며, 사용되지 않는 배아는 ‘고아’로 남아서 실험도구로 사용될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냉동 배아의 처리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비윤리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배아를 ‘입양’하여 다른 부부가 출산하자는 제안도 다른 심리적, 법적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결국 교회는 수많은 ‘냉동’ 배아의 운명과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정당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인간 배아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호소합니다.

28) 배아 감수(減數)는 고의적인 선택적 낙태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배아 감수는 고의적인 낙태이다. 이는 사실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한 명 이상의 무고한 인간을 그 존재의 초기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늘 심각한 도덕적 무질서를 야기한다. 배아 감수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주장은 종종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자연 재난이나 위급 상황에 비유된다. 선의의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해도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인간의 존엄 21항>

체외 수정으로 시험관에서 만들어진 배아가 모태에 이식될 때 착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배아를 자궁에 넣음으로써 다태(多胎)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든 태아들이 건강하게 분만되기 어려우므로 선택적으로 소수의 배아들을 제거하는 ‘배아 감수’가 시행됩니다. 이는 다른 태아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무고한 인간 생명을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낙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아 감수는 원치 않는 성(性)이나 특성을 지닌 배아를 배제하는 우생학적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간 생명의 가치를 오직 정상(正常)과 ‘신체적 안녕’의 범위 내에서만 측정하겠다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인간의 존엄 22항>◆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인 1989년, 우리나라에서는 참으로 은혜롭게도 제44차 세계 성체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들었고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몸소 성체 대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세계 성체 대회를 준비하고 지내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추기경님께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인 토양 위에서 성체성사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성체성사적인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추기경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성체성사의 의미를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의 강력한 몸짓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느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셨지만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전 실존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이들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성사에 초대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듣게 되는 ‘생명’이나 ‘머물다’ 또는 ‘다시 살리다’라는 용어는 우리가 향유하게 될 구원의 유익을 설명해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체성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몸소 내어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총의 순간이요, 기쁨의 장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눔의 심오한 신비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성체성사 안에서 신앙인들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만남을 이루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믿는 이들은 성체성사 안에서 그분을 만남으로써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살과 피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임을 자처하고는 있지만 과연 자신을 온전히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있는지요?

믿는 이들은 성체성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나눔의 실천적인 삶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서 구현됩니다. 자기의 배 속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밥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 하신 추기경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컷전을 울리는 것이 과연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황지영 안젤라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체첼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8월

◆ 유아세례 : 29일(토) 6:00 pm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세례식에는
대부모님들도 꼭 참석해야 합니다.

- ◆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한자리'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6일) 오후 5시
 - 장소 : 친교장
 - 참석대상 : 임명장 받은 봉사자 전원 & 전임 회장단
- ◆ 외곽교우 가정을 위한 특별 예비자 교리반 개설
부부 중 한사람이 비신자인 외곽교우 가정을 위한 특별 예비자 교리반이 개설돼 8월 5일 환영식을 갖고 매주 2회 집중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배우자는 물론 이웃들도 관심을 갖고 예비자들을 교회로 많이 인도합니다.
 - 교육시간 : 매주 수/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 남가주 여성 제30차 꾸르실료에 본당에서 4명 참가
 - 일시 : 8월27일(목)~30일(주일)
 - 참가자 : 고규재 체칠리아, 엄혜은 도로테아, 채승희 에스더, 최경애 프란치스카
 - 참가자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백삼위 울뜨레아 모임
 - 일시 : 8월21일(금) 오후 8시
 - 장소 : 강당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백삼위 '성체신심 세미나'
 - 일시 : 8월26일(수)~28일(금) 오후 7시30분,
8월29일(토) : 면담

- 장소 : 성전
- 강사 : 현요안 요한 신부(세계성령대회 준비위원)
- 신청/문의 : 최기남 야고보 성령기도회장 ☎(310)569-3940
- ◆ 구역장 / 반장 일일 연수
 - 일시 : 8월29일(토) 오전 9시~낮 12시
 - 장소 : 성전
 - 준비물 : 필기도구
- ◆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
 - 일시 : 8월29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강당
- ◆ 남가주 M.E. 제64차 첫주말 참가자 모집
 - 일시 : 9월11일(금)~13일(주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P.V.)
 - 문의 : 백삼위 M.E. 신임 대표부부 김광일 스테파노 & 김인자 요세피나 ☎(310)803-0777
- ◆ 여성 분과 '미션' 순례
 - 일시 : 9월12일(토) 오전 8시~오후 5시
 - 장소 : 산타바바라 미션
 - 대상 : 성모회, 자모회, 구역장, 반장
 - 참가비 : \$10
- ◆ 대학부 파첸(PACEM) 공부방 개설
본당 대학생 신자들로 구성된 PACEM이 '공부방'을 개설했습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시십시오.
 - 문의 : 회장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 전기 소모량이 많습니다. 아껴씹시다.
2층 각 교실과 강당, 회의실 등 전기 및 냉방기를 사용한 후 반드시 꺼 주시기 바랍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16일(주일) : 토런스 서 2반(해물잡탕밥 \$3)
 - 8월23일(주일) : 하머/카슨 2반(열무콩보리 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구자운	금영도	김대우	김민석	김양금
	김옥보	김옥찬	김 욱	김원호	나경흠	남명자
	문영일	문충한	민봉식	민소예	박광자	박상준
	박인식	서병교	성낙호	송기철	엄지선	오 진
	원건희	이경용	이근모	이연행	이영숙	이영희
	이용식	이용무	이인두	장수창	장영진	정병훈
	정지숙	정훈모	최이원	한상현	한혜숙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 \$4,215						
미사헌금 : \$2,770						

성전헌금	강숙경	구자운	금영도	김대우	김민석	김양금
	김옥보	김옥찬	김 욱	김원호	나경흠	남명자
	문영일	문충한	민봉식	민소예	박광자	박상준
	박인식	서병교	성낙호	원건희	이경용	이근모
	이영숙	이영희	이용식	장수창	정지숙	정훈모
	최이원	한상현	한혜숙	한길선례		
합계 : \$3,035.26						
리사이클링 수입 : \$170.26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등록기간 : 9월27일(주일)까지
- 등록비: \$100 (9월14일 이후 \$11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40 (가정당)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속히 마치주시면 모든 준비에 도움이 되오니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여름방학 중에도 학생미사가 오전 9시30분에 있습니다.

남가주 소식

◆ 성 골롬반 청소년 2009 선교회원 모집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재)에서는 가톨릭 신자로서 선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새 회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 고등학생 9~12학년
- 신청기간 : 8월 한달간
- 신청 및 문의 : ☎(213)389-4612, scyc2006@gmail.com

◆ 2009년 남가주 성령채신대회

- 일정 : 8월22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8월23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16007 Crenshaw Bl. Torrance)
- 강사 : 오스카 솔리스(LA대교구 보좌주교),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작은형제회 한국관구장), 현요안 요한 신부(세계성령대회 준비위원), 전홍식 요아킴 신부(베이크스필드 성당 주임), 반영익 라파엘 신부(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지도신부)
- 참가비 : \$25(예약시 \$20)
- 연락처 : 각본당 성령기도회 및 봉사회 ☎(213)435-7570

◆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19번 피정으로 초대합니다.

- 일정 : 2009년 9월~2010년 6월
(현재 9월 시작을 위한 준비)
- 매주 1회 개인의 영적 지도자와 만남
매월 1회 기도 체험 나눔
- 내용 : 일상의 삶 안에서 말씀을 통한 기도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LIS)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허레지나 ☎(714)606-6679,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이번 주 단체 모임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자리'	오후 5시, 친교장
-----------------	------------

다음 주 단체 모임

8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찌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8/6(목)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유선식 필립보 326-2184 8/22(토) 오후 7시
	3	신덕례 데레사 634-6169	신덕례 데레사 634-6169 8//20(목) 오후 8시2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8/11(화)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8/21(금)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8/8(토) 오전 10시 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최옥희 데레사 378-4183 8/14(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8/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8/14(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오세원 아타나시오 895-8624 8/7(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	김민수 바오로 530-3232	김민수 바오로 530-3232 8/28(금) 오후 7시30분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윤희동 안토니오 365-9750 8/23(일) 오후 2시, 성당 친교장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 (2) "하느님 은총이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다." ◎

당시 신학교 시험은 교수와 학생들이 라틴어로 문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비안네는 시험 때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입학 동기들은 그를 비웃었다. 동료들은 그를 ‘열등생’으로 낙인찍었다. 역설적으로 이 시절 비안네의 성모 공경 신심은 더욱 깊어진다. 어려운 학업을 극복하기 위해 비안네는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기로 서원한 것이다. 그리고 학업의 어려움 속에서 평생의 영적 동반자, 마르첼리노를 만나게 된다. 마르첼리노 삼파냐(마리아의 작은 형제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창설자)도 역시 라틴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역시 현실이었다. 비안네의 고민은 깊어갔다. 공부를 도저히 따라갈 자신이 없었다. 당시 비안네의 학년 말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근면: 좋다. ▲행실: 좋다. ▲성격: 좋다. ▲신심: 깊다. ▲지식: 나쁘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비안네 신학생이 라틴어와의 전쟁을 치르며 끙끙대던 어느 날이었다. 그런데 신학교 영성지도 신부와 교수 신부들이 비안네 신학생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신학교를 떠나는 것이 좋겠네.”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며 사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했던 비안네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신학교 신부들은 비안네 신학생이 학업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시로선 라틴어를 모르면 철학과 신학의 핵심을 접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비안네 신학생은 신학을 수학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다. 인간적 욕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반발할 수 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반드시 사제가 되어야 한다.” “당신들이 뵈네, 인간적 판단으로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떼어놓으려 하느냐?” 하지만 비안네 신학생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신학교를 떠난다. 순종한 것이다. ‘난 정말 사제가 될 수 없는 것일까.’ 하고 자문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토록 원하던 사제의 길은 이제 포기해야 했다. 그 고통과 회한은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영적 스승인 발레 신부의 품 안에서 폭발한다. 엉엉 울었다. 발레 신부는 목 놓아 우는 비안네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사제가 될 수 있어.” 눈물 가득한 눈으로 발레 신부를 올려보는 비안네의 눈이 반짝였다. 발레 신부는 이후 비안네의 개인 교수를 자처하고 직접 가르쳤다. 비안네의 눈높이에 맞춰, 라틴어가 아닌 영성 신학 중심으로 가르쳤다. 비안네도 성심껏 공부에 매달렸다. 비안네 신부에 관한 대부분의 영화와 드라마는 이쯤에서 극적인 반전(비안네의 사제서품)으로 이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3개월 후 비안네는 발레 신부와 함께 다시 대신학교를 찾아 졸업시험을 보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발레 신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발레 신부는 마지막 선택을 한다. 당시 리옹 교구장 주교를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비안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농치기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비안네를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꼭 사제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주교는 발레 신부의 계속되는 청에 못 이겨 감독관 2명을 비안네에게 보냈다. 사제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오라는 것이었다. 어쩌면 감독관 파견은 비안네에 대해 부정적인 주교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발레 신부의 정성어린 탄원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다면 별도로 감독관을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교는 아마도 감독관이 “비안네는 역시 사제가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발레 신부의 사제관으로 와서 비안네를 직접 만나고 살펴보면, 시험을 치룬 후 평가를 내린 감독관들은 전혀 다른 보고서를 주교에게 제출했다.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대부분의 시골본당 신부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독관이 비안네에게 내어준 시험지는 라틴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된 것이었다. 신학교 시험이 라틴어로 치러지는 탓에 그동안 비안네는 한 번도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감독관의 보고서를 받고도 주교는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즈음, 비안네에게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교구 사목 책임자가 바뀐 것이다. 쿨봉 주교였다. 비안네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비안네는 교구에서도 이미 공부 못하는 신학생으로 소문난, 유명 인사였다. 발레 신부는 다시 한 번 주교를 찾아갔다. 기대는 물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쿨봉 주교가 의외의 질문을 한다. “비안네는 신심이 깊습니까?” 발레 신부를 비롯한 교구청의 사제들은 “공부는 못하지만, 신심은 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쿨봉 주교가 한참동안 생각에 잠긴 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사제로 부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톨릭 신문 - 계속]